

Revista Iberoamericana, 19-2, 2008

관계절에 관한 새로운 고찰

신 태 식

단독/고려대학교

Shin, Tae-Shig(2008), El acercamiento diferente a las oraciones relativas, *Revista Iberoamericana*, 19-2, pp. 47-70.

El tema de este artículo se tratará de intentar explicar por qué se prohíbe aparecer especialmente en las oraciones relativas restrictivas el pronombre relativo *quien* nominativo, de modo que no se permiten los tipos siguientes de oración: **la chica quien viene*. Al contrario, puede colocarse en la misma posición sin dificultad el relativo inglés *who*, por ejemplo, *the girl who comes*. Según el modelo teórico generativista, sin embargo, las dos lenguas no revelan ninguna distinción morfosintáctica en términos de relativización. Por lo tanto, supongo que la distinción sintáctica antes mencionada entre *quien* y *who* se basará en las propiedades léxicas del pronombre relativo, y no en el parámetro de estructura jerárquica oracional.

Para probarlo en este trabajo, por una parte, consideraré una propuesta más reciente de Arregi (1998) sobre el ascenso de antecedentes, mediante el que salen de la FC relativa dejando su huella en una posición temática. Por otra parte, me ocuparé de demostrar una simetría sintáctica entre *el que* y *quien*, lo que nos ayudará a verificar por qué razón ambos tipos de pronombre relativo no se permiten derivarse como sujeto en las oraciones relativas restrictivas.

Basándose en las dos estrategias adoptadas, lograré mostrar que el pronombre *quien* tendrá una propiedad léxica peculiar que no permite subir a su antecedente desde una posición interior en una oración relativa para ensamblarse con el núcleo de FD.

[pronombre relativo / ascenso de antecedentes / restrictivas / propiedad léxica;
관계대명사 / 선행사의 이동 / 제한적 / 어휘자질]

I. 문제제기

이 논문에서 본 연구자는 스페인어의 관계절 중에서 제한적 용법만을 다루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의 예문에서 적절한 답변을 찾아 볼 수 있다.

- (1) a. *El hombre quien trabaja aquí...
 a'. El hombre, quien trabaja aquí...
 b. *Pedro del que te hablé ayer...
 b'. Pedro, del que te hablé ayer....
 c. *Ella a quien le debemos mucho...
 c'. Ella, a quien le debemos mucho...

(Lagunilla y Rebello, 1995: 325)

예문 (1)에서 알 수 있듯이, 제한적 관계절에서는 비문법적 표현이 계속적 관계절로 전환함으로써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물론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 간의 음운론적, 의미론적, 통사론적 차이가 현격히 존재한다. 하지만, 분명한 문법적 사실은 제한적 용법이 계속적 용법보다 훨씬 더 통사적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¹⁾. 따라서 본 연구는 통사적인 제약이 거의 없는 계속적 용법을 논의로 하고 제한적 용법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관계절의 제한적 용법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한 후에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영어의 관계대명사 who는 제한적 관계절에서 주격으로 쓰이는 반면에 스페인어 관계대명사 quien은 왜 그렇지 않은가?”이다. 다음의 예문이 앞의 질문을 경험적으로 보여 준다.

-
- 1) 반대로 다음의 경우는 계속적 용법이 제한적 용법보다 더 문법적인 제약을 받고 있다 :
- (i) a. Los amigos en los que confía..
 b. Los amigos en los que confie..
 (ii) a. Los amigos, en los que confía...
 b. *Los amigos, en los que confie...

(Lagunilla y Rebello, 1995: 325)

제한적 용법에서는 선행사의 구체성(±especificidad)에 따라 관계절 내에 직설법이나 접속법 둘 다 가능하지만, 계속적 용법에서는 선행사가 구체성(+especificidad)만을 가지고 있어서 접속법을 관계절 내에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통사적 제약이 아니라 의미적 제약으로 판단해야한다고 본다.

- (2) a. John has a son **who** sells the tickets.
 a'. John has a son **that** sells the tickets.
 b. *Juan tiene un hijo **quien** vende las entradas.
 b'. Juan tiene un hijo **que** vende las entradas.
- (3) a. John is the man **whom** she saved.
 a'. John is the man **that** she saved.
 b. Juan es el hombre **a quien** salvó ella.
 b'. Juan es el hombre **que** salvó ella.

예문 (2)에서처럼 종속절의 주어와 관계절로 변형하고 그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에 이 관계대명사를 편의상 주격 인칭 관계대명사로 지칭하고, 예문 (3)에서처럼 종속절의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그 선행사로 사람을 취하는 경우에는 목적격 인칭 관계대명사로 칭하자. 이런 식으로 구별한 문법적 기능에 초점을 두면서 예문 (3a)과 (3b)를 비교해 보면, 영어와 스페인어 관계대명사가 목적격(*whom*과 *a quien*)으로 기능을 수행하면 두 문장 모두 문법적인 반면에, 주격 인칭 관계대명사(*who*과 *quien*)로 기능하면 문장(2a)의 도출은 문법적인 합치에 도달하는데 (2b)는 그 도출이 파탄된다. 물론 두 문장 모두가 계속적 용법으로 변용되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문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4) a. John has a son, **who** sells the tickets.
 b. Juan tiene un hijo, **quien** vende las entradas.
- (5) a. John is the man, **whom** she saved.
 b. Juan es el hombre, **a quien** salvó ella.

여기서 주목할 만한 현상은 주격 인칭 관계대명사가 *que*로 대체되면, (2b')에서 알 수 있듯이 스페인어 관계절 또한 문법적인 도출이 합치에 이르게 되며, 결국 영어와 스페인어의 관계절 도출과정에서는 통사적 차이점을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본 논문은 앞에서 언급한 주격 ·

목적격 인칭 관계대명사의 활용에 있어서 영어와 스페인어 간의 문장 어순과 통사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두 언어의 관계대명사 *quien*과 *who*의 통사적 차이가 영주어 언어와 비 영주어 언어 간의 문장 구조 차이의 매개변인에서 비롯되었기보다는 스페인어 관계대명사의 어휘적 특성 때문이라고 본 연구의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고자 하는 이론적 바탕은 모든 이동에서 형성된 연쇄는 하나의 의미역을 가져야 한다는 언어의 보편적 원리이다. 이런 문법적 테두리를 지닌 생성문법론에 입각하여, 스페인어의 관계대명사 *el que*를 보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 대명사는 선행사가 [+humano]의 자질을 갖는다면 관계대명사 *quien*과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관계절에서의 기능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선행사와 관계사의 이동 현상을 명확하게 증명하여 주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여 관계대명사 *quien*이 영어와 달리 어떠한 어휘적 특성을 지니며 그에 따라 문장구성의 과정에서 병합과 이동에 어떻게 작용하여 도출되는지를 본 연구 논문의 논리 전개 방향의 중심축으로 삼고자 한다.

II. 스페인어와 영어의 관계절

스페인어의 관계대명사절을 설명할 때 대부분의 교수자가 영어의 관계대명사절을 예로 들면서 비교·설명한다. 이는 스페인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영문법에 어느 정도 익숙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영어의 인칭 관계대명사 *Who / Whom*가 인칭 의문대명사와 기본적인 자질을 공유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스페인어의 관계대명사 또한 의문대명사 *quién / a quién*과 그러하기 때문이다.

- (6) a. ¿A quién conoció Juan?
b. la persona [a quien conoció Ju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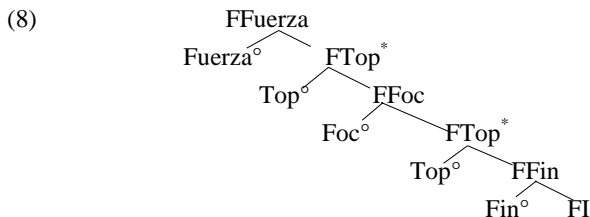
(Zagona, 2000: 56)

예문 (6)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의문대명사와 관계대명사 모두 그 절 동사의 보충어으로써 의미역과 목적격을 할당 받고 있고, 이들에 의한 흔적을 의미역 위치에 남겨두고 절의 서두로 옮겨 왔음을 알 수 있다. 두 절의 계층구조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분명한 차이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이다. 첫째, Zagona(2000)가 언급했듯이,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필요로 하는 반면에 의문대명사는 그렇지 않다는 통사적 사실이다. 둘째, 스페인어의 의문절에서는 주어와 동사의 도치가 의무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반면에 관계절에서는 반드시 도치 어순을 따를 필요가 없다. 이 어순의 차이가 (7)의 예문에서 잘 보인다.

- (7) a. *¿Qué libro Luis te regaló?
 b. El libro que Luis me regaló.

(GDLE I, 400)

그럼에도 불구하고, Rizzi(1997)의 문의 계층구조분석인 (8)의 수형도에 따르면 스페인어 보문사 *que*²⁾는 언표내적 힘(Fuerza ilocutiva)의 범주로서 문의 최상위에 위치하고 주어인 Luis는 주제어이든 아니면 문의 외현의 주어이든 시제동사 앞에 위치할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 논의의 편의상 본 연구에서는 문의 외현의 주어 기능은 제외하고자 한다.³⁾



2) 전통적인 규범문법에서는 *quien*와 더불어 *que*도 관계대명사라고 간주해 왔다. 하지만 지배결속이론에서부터 *that*는 관계대명사가 아님을 역사적, 통사적으로 규명해 왔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양동휘(1989)를 참조할 것.

3) Zubizarreta(1998), Ordoñez(2000), 신태식(2008)에서 자세히 다루었음.

실제로, 보문사 que가 언표내적 힘의 범주 내에서 외현적으로 관계운용자로서 도출된다면 문장요소인 Luis는 FTop의 지정어에 위치하여 시제동사 앞에 위치 할 수 있다. 반면에 (7a)의 의문사구는 (8)의 수형도에서 FFoc의 지정어로 이동하여 가기 때문에 외현적으로 도출한 주제어 Luis는 적합한 위치를 찾지 못하고 파탄에 이르게 된다. 그 문장이 합치되기 위해서는 주제어가 의문사구 앞에 위치하는 경우뿐이다⁴⁾.

(9) Luis, ¿Qué libro te regaló?

이상과 같이, 보문사 que와 관계대명사 a quien 등이 FFuerza을 이동의 목표점으로 하여 거기까지 움직인다면, 이 도출은 의문사구의 문두로의 이동과 방법론적으로 똑같은 운용자의 이동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단지, 작용자의 착륙지점이 자질의 차이로 인해 다를 뿐인 것이다.

결국, 스페인어 교수자가 관계절을 영어의 그것과 비교하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수법은 생성문법이론 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통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스페인어와 영어의 관계절은 한 이론 모델에 따라 똑같은 도출과정을 밟는다는 것이다.

이 장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스페인어와 영어의 관계절을 생성하는 도출과정에서 매개변인적인 차이를 현재까지는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를 본 논문에서는 인정하고 두 언어 간의 주격 인칭 관계대명사의 통사적인 차이를 다른 부분에서 그 원인을 찾아 설명하고자 한다.

4) 의문사절과 관계절 간의 주제화 현상 차이는 다음의 예에서도 경험적으로 증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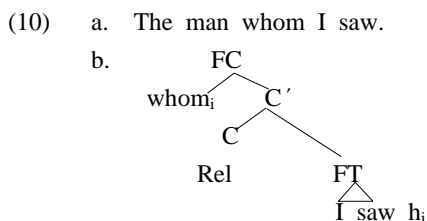
- (i) a. A la hora del asesinato, ¿en qué lugar estaba Juan?
b. *¿En qué lugar a la hora del asesinato estaba Juan?
- (ii) a. La habitación en la que, a la hora del asesinato, estaba Juan.
b. *La habitación a la hora del asesinato, en la que estaba Juan.

III. 관계절에 관한 이론의 역사적 전개

1. 관계대명사의 이동

전통적인 규범문법에서는 who와 더불어 that도 관계대명사라고 간주해 왔다. 하지만 Chomsky의 지배결속이론에서부터 that는 관계대명사가 아님을 역사적·통사적으로 규명해 왔다⁵⁾. 생성문법의 틀 내에서 스페인어의 관계절은 1980년대에 Jaeggli(1982)와 Rivero(1982)로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본 논문에서도 이들과 같이 quien은 관계대명사로 여기지만 que는 관계대명사가 아닌 보문사로 다루겠다.

지배 결속이론에서 부족하게 여겨졌던 관계대명사의 이동에 대한 설명이 최소주의의 자질점검이론을 통해서 더욱 명백히 설명되어진다. 이에 따라 다음의 관계절을 본 연구자는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구조적으로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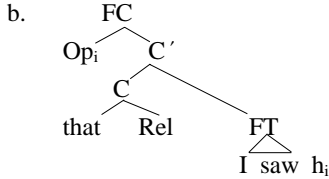
(10b)의 수형도에서 알 수 있듯이, 관계대명사 who는 의미역의 자리에 흔적 h을 남겨두고 보문사의 핵 C가 가진 명시어-자질 [+rel]를 점검하기 위하여 FC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하는 것은 개화된 이기주의⁶⁾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관계대명사가 공 연산자 Op이고 보문사 that가 병합한 관계절은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5)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양동휘(1989)를 참조할 것.

6) 개화된 이기주의(Enlightened Self-Interest)는 한 문장성분은 다른 성분의 형태적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동한다는 문법원리이다(Lasnik, 1992 y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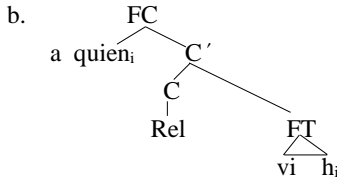
(11) a. The man that I sa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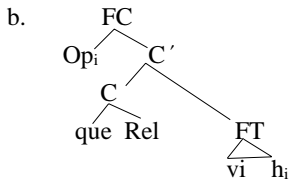
공 관계대명사 연산자 Op가 이동하는 것은 that가 보문사 Rel에 핵 부가 하였지만 핵이 지니고 있는 자질 [+rel]을 점점하기 위해 FC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하는 것 또한 개화된 이기주의에 기인한다.

최소주의의 자질점점이론에 따라 (10)와 (11)의 영어 예문에 상응하는 스페인어의 목적 관계대명사절을 유추의 방식으로 분석하면 다음의 (12)와 (13)와 같다.

(12) a. La persona a quien vi.



(13) a. La persona que vi.



수형도 (12)와 (13)에서 추론해야하는 중대한 문법적 현상은 명시적 주어인 yo가 관계대명사와 동사 사이에 위치할 수 있다는 통사적 사실이다. 앞 장에서도 언급했듯이 의문대명사와 형태·통사적으로 매우 흡사하게 이동하지만 착륙지점이 계층 구조적으로 전자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하여 명

시적 주제어(주어)가 관계대명사 혹은 보문사와 동사 사이에 구조적으로 이동하는 도출의 결과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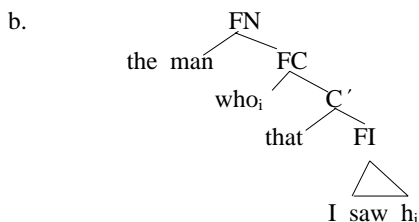
- (14) a. La persona a quien **yo** vi.
 b. La persona que **yo** vi.

위와 같은 관계대명사와 보문사의 구별은 다음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선행사의 이동에 필수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 관계절 내의 문장요소의 지배관계

현대영어에서는 사라진 현상이지만 중세영어에서 관계대명사와 보문사가 한 문장 내에 동시에 쓰임으로서 두 문장요소 간에 계층관계를 파악하는데 경험적인 증거를 다음과 같이 보여준다.

- (15) a. the man who that I saw. (양동휘, 1989)



다시 말해서, 영문법에서는 중세 자료에 기초하여 현재의 관계대명사 구문을 분석할 경우에도 관계대명사 who가 보문사 that보다 더 상위에 위치한다고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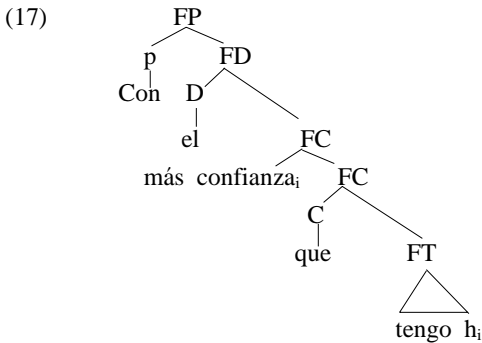
지금까지 본 연구자는 스페인어의 관계대명사 구문을 영어의 관계절 구문과의 통사적 대응관계가 지속됨을 보여 왔다. 이 연구 방법에 따라 스페인어의 관계대명사 quien과 보문사 que의 계층관계도 영어와 비슷할 것으로 추론했다. 다행히도 본 연구자의 비교·언어학적인 유추가 크게 어긋나

지 않음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스페인어 예문들을 카나리안 방언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 (16) a. el amigo con el que tengo más confianza
- b. el amigo con el más confianza que tengo

(Arregi, 1998: 7)

(16b)가 모든 스페인어 권에서 표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위의 예문들은 카나리아 방언에서 실제로 허용되는 문장이다. 앞에서 알 수 있듯이, 관사 *el*과 보문사 *que* 사이에 명사구가 삽입되고 있다. 이 관찰에서 발견한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 *el que*가 관계절에서 한 문장 요소로서 통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que*는 보문사이고 관사와 보문사 사이에 삽입한 문장요소 *más confianza*는 FC의 외곽에 부가하고 있다고 본 연구자는 계층구조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게다가, 성의 불일치로 인해 FD *el*의 보충어가 되지도 않는다. 이를 수형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수형도 (17)의 분석에서처럼 보문사 *que*가 병합한 FC의 외곽에 다른 문장요소의 부가가 경험적으로 관찰된다면, 관계대명사 또한 FC의 지정어나 그 범주의 외곽에 외현적으로 이동하거나 부가할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준다고—다른 가능한 분석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본 연구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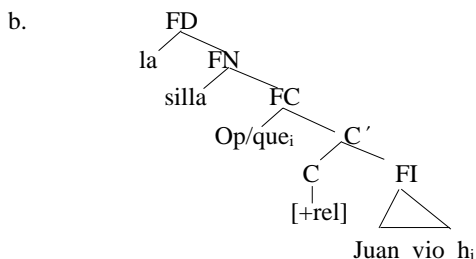
주장한다. 이것을 차후에 증명하고자 하는데, 영어와 마찬가지로 스페인어 관계절의 구조적 어순 또한 관계대명사 *quien* / *a quien*가 보문사 *que*보다 계층적으로 더 상위에 위치한다고 일관성 있게 분석 하는 이점을 제공하여 주며, 이는 지금까지 영어와 스페인어 간의 관계절에 있어서의 유사성을 한층 더 강화해주는 경험적 자료로 활용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관계대명사와 보문사 간의 계층적 어순을 고려하면서 본 연구자는 선행사와 그것을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의 통사적 관계를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3. 선행사의 이동

제한적 관계절을 분석하는 대부분의 언어학자들은 Montague(1974), Chomsky (1977), Jackendoff(1977), Jaeggli(1982), 등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계절이 수식하는 선행사는 그 절 FC의 외곽에서 생성되어 병합된다는 토대에 근거하여 관계대명사들을 형태·통사론적으로 분석한 것이 주된 흐름이었다. 그 만큼 관계대명사의 연구에서 선행사의 비중은 미비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기존의 분석을 수형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8) a. La silla [FC Op/que_i Juan vio h_i]



위의 구조에서 관찰되듯이, 관계절 내에서는 그 운용자가 내·외현적으로 표현됨에 관계없이 비논항 이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계절 FC는 FN에 부가한 상태로 수식하고 있다. 이 분석에 의하면, 통사부나 LF에서 선행사

FN은 FC의 내부에 어떠한 연결고리도 갖고 있지 않음으로써 그 내부의 어떤 위치에서도 논리적 재구성을 도출할 수가 없다.⁷⁾

다른 한편으로, 선행사가 관계절과 병합한다는 기존의 주장은 결속현상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19) Esta es la foto de sí mismo_i de la que me habló Juan_i
(Arregi, 1998: 10)

예문에서 대용사 sí mismo은 관계절 내부에 있는 Juan에 의해서 결속되고 있다. 이 사실은 FN sí mismo가 LF에서 관계절 내의 어떤 지점과 재구성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다시 말해, 이 명사구가 관계절 내에서 이동해 오지 않고는 앞의 결속 사실을 설명할 다른 도출과정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이다.

관계절의 선행사가 이동해야한다는 정당성이 다음의 결속현상⁸⁾을 보여주는 예문에서도 확인된다.

(20) *The opinion of him_i that John_i has is favorable.
(Bhatt, 2002: 49)

외견상으로 대명사 him이 관계절 밖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결속원리 B에 의하여 문법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예문은 비문법적이다. 비문법성을 설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선행사와 동반 이동에 의하여 대명사 him이 관계절 내부에서 외부로 이동했다고 예측하는 것이다.

7) Kayne(1994)은 재귀대용사의 결속이론을 통하여 재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i) John bought the picture of himself_i that Bill_i saw.

그에 의하면, 공 운용자의 이동 분석 하에서는 재귀대용사 himself가 Bill에 의해 결속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8) Chomsky(1986: 171) : We say that indexing I and the pair (α, β) are compatible with respect to the binding theory if α satisfies the binding theory in the local domain β under the indexing I :

I is BT-compatible with (α, β) if :

(A) α is an anaphor and is bound in β under I.

(B) α is a pronominal and is free in β under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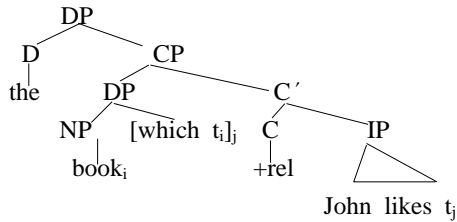
(C) α is an r-expression and is free in β under I.

위의 추론이 결속원리 C에 해당하는 다음의 문장에서 다시 한 번 증명되고 있다.

- (21) *The opinion of John_i that he_i thinks Mary is unfavorable.
(Bhatt, 2002: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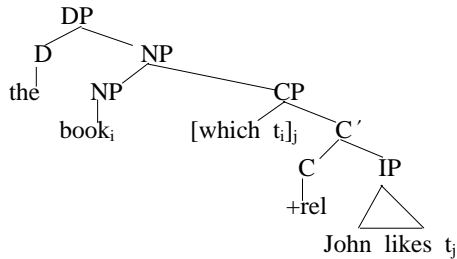
관계절 외부로의 선행사 이동에 대한 가설 하에 Kayne(1994)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절에 대한 구조 분석을 아래와 같이 제한했다.

- (22) a. the book which John likes
b.



본 연구에서는 Kayne의 구조를 수정한 Bhatt의 다음의 구조 분석을 따르고자 한다.

- (23) a. the book which John likes
b.



Bhatt에 따르면, which John likes가 FN book를 제외한 한 문장요소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ayne의 구조 분석에는 이것이 반영되고 있

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래의 예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24) the picture [which Bill liked] and [which Mary hated]
(Bianchi, 2000: 132)

Kayne의 경우에는 반대칭(antisymmetry)을 위반하는 우측부가를 허용하지 못하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23)의 수형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Kayne를 제외한 많은 언어학자들이 우측부가를 통사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논의를 여기서는 생략하면서 우측부가를 도출의 한 단계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선행사의 이동은 관계절의 계속적 용법과 제한적 용법에서 뚜렷한 차이를 엿볼 수가 있다. 다음의 두 예문을 살펴보자.

- (25) a. El amigo de su_i padre con el que hable cada alumno_i tiene que ser pescador.
(Arregi, 1998: 11)
- b. El amigo de su_i padre, con el que hable cada alumno_j, tiene que ser pescador.

제한적 관계절인 (25a)에서는 대명사 su_i가 관계절 내부의 양화사구 cada alumno_i에 결속되어 있는 반면에 계속적 관계절에서는 대명사 sui가 양화사구 cada alumno_j와 결속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가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제한적 관계절만을 연구의 테마로 정한 연구의 정당성이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두드러진다. 제한적 용법일 경우에는 선행사가 관계절 외부로 이동이 성립하고, 계속적 용법은 그렇지 않는 도출 작용이 각각 실행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기존의 관계절의 선행사에 대한 통사론적인 접근방식을 벗어나 Brucart(1992)와 Arregi(1998)가 제안한 선행사의 이동에 근거하여 먼저 el que 관계절을 분석하고, 그에 준하는 방식으로 quien의 주격 인칭 관계대명사가 제한적 관계절에서 허용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IV. 관계대명사 : el que와 quien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스페인어의 제한적 관계절에는 두 가지 형태의 문장요소가 나타난다. 하나는 보문사 que가 외현적으로 도출되기 위해 C에 병합하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관계 운용자 el que와 quien이 의미역의 위치에서 FC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하는 것이다. 특히 quien의 경우는 선행사가 오직 [+animado] 자질을 가지고 있을 때 허용된다. 따라서 el que의 관계절을 설명하면 quien의 관계절도 부수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연구자는 예측한다. 다음의 예들을 보자.

- (26) a. el hombre que conocí es ciego.
 b. el hombre al que conocí es ciego.
 c. el hombre a quien conocí es ciego.

- (27) a. el hombre que te quiere es ciego.
 b. *el hombre el que te quiere es ciego.
 c. *el hombre quien quiere es ciego.

제한적 용법에서 보문사 que가 나타나는 경우는 주격이나 목적격에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관계절이 도출되는 반면에, 관계운용자 el que와 quien은 목적격으로 사용되는 환경에서는 합치에 도달하지만, 주격일 경우에는 문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다.

본 연구자는 먼저 합법적 도출의 과정인 (26b)와 (26c)의 문장들을 앞에서 제시한 선행사의 이동에 근거하여 문법적으로 타당하게 설명한 후에, 그와 똑같은 논리로 (27b)와 (27c)의 비문법적 도출을 설명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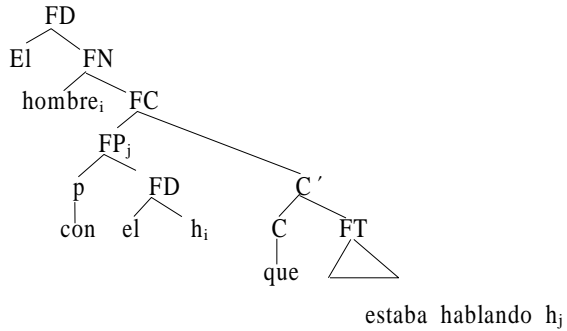
1. 복합 관계대명사 : el que

지금까지 el que를 관계대명사 취급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이 문장요소가 복합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선행사의 이동과정을 표현하는 다음의 수형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다.

(28) a. El hombre con el que estaba hablando es ciego.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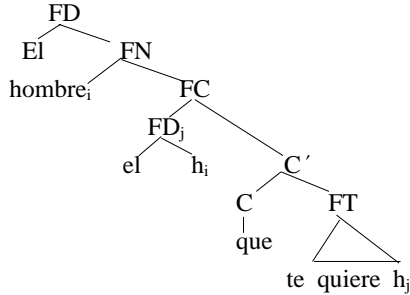
본 연구자가 이 분석에서 강조하는 것은 FP con el hombre가 FC의 지정어 위치로 상승이동하고 그 후에 FN인 hombre가 관계절 밖으로 이동해 나가서 FD의 보충어로서 D인 el과 병합하는 것이다. 그 외의 자질 점검이나 LF에서의 논리적 재구성 등등은 앞 장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선행사구 내의 D와 FN의 형성관계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계속적 용법과 제한적 용법의 차이를 통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 용법이 제한적 용법보다 도출과정에 있어서 매우 광범위한 문법적 허용이 가능함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제한적 관계절 el que의 전치사격을 설명했는데 목적격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전개된다. 이를 근거로 주격의 비문법적 도출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보여주는 (27b) 문장을 아래에 다시 한 번 반복한다.

(29) a. *el hombre el que te quiere es ciego.

b.



수형도 (29b)는 (28b)의 계층구조 분석과 거의 똑같은 도출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que는 보문사로서 C의 핵에 부가하고 있고, FD는 FC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하여 착지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Spell Out 단계 전까지는 문법적 합치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9a)의 문장이 문법적으로 파탄하게 되는 이유는 한정사 *el*의 어휘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본 연구자는 가정한다. 즉 스페인어의 한정사는 일종의 접어대명사적 성질을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정사에는 강세가 부재하기 때문에 문장 내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FN이 선행사구의 한정사 핵 D와 병합하기 위해 하위의 FD의 보충어 위치로부터 탈출해 상승한다면 그 한정사 핵 *el*은 홀로 남게 되어 파탄에 이르게 된다.⁹⁾

이와 반대로, (28b)의 구조에서는 하위의 한정사 *el*은 FP의 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Spell Out 한다. 결국, 제한적 관계절 *el que* 구문의 통사적 도출과정은 체계적인 일관성을 격에 상관없이 유지하고 있으며, 단지 한정사의 접어대명사적 특징으로 인해 문법성과 비문법성의 차이를 설명하는 새로운 해결 방안을 본 연구는 제시하고 있다.

제한적 관계절 *el que*에 관한 분석의 방법을 제시하였으므로 다음 장에서 지금까지 미루어 두었던 제한적 관계절 *quien*을 설명하고자 한다.

9) 본 연구의 범위를 제한적 용법에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독립관계대명사절을 이끄는 *el/la que*와 혼동을 피하길 바란다.

i) *La que visitamos en Polonia era espectacular.*

2. 관계대명사 : quien

관계대명사 quien에 대한 분석의 토대는 앞 장에서 다룬 복합 구조의 el que와 똑같은 방법이다. 목적격 인칭 관계대명사 a quien는 앞 장의 al que와 분포적으로 유사함을 보이므로 설명의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다음의 예문을 제시하고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자.

- (30) a. El hombre **al que** vimos ayer.
 b. El hombre **a quien** vimos ayer.

지금부터 본 연구의 목적인 주격 인칭 관계대명사 quien의 비문법적인 도출에 관한 설명하도록 하자.

- (31) a. *el hombre el que te quiere es ciego.
 b. *el hombre quien te quiere es ciego.

앞 장에서 (31a)의 관계절이 파탄하는 이유를 한정사의 접어대명사와 비슷한 특징에 의거하여 설명하였다. 하지만 (31b)의 문장에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앞에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언급했듯이, 스페인어 관계사절은 영어의 관계절과 비교하면서 문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화된 교수법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단순히’ 비교하고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스페인어의 주격 인칭 관계대명사 quien이 제한적 용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근본적 이유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본 연구자는 연구의 포인트를 두었다. 편의상 앞의 (2)의 예문을 아래에 다시 한 번 반복한다.

- (32) a. John has a son **who** sells the tickets.
 a'. John has a son **that** sells the tickets.
 b. *Juan tiene un hijo **quien** vende las entradas.
 b'. Juan tiene un hijo **que** vende las entradas.

위의 예문에서 실현된 단순 비교의 기저에는 두 언어의 관계대명사가 어휘적인 자질과 문장에서의 역할과 기능이 똑같다는 가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가정이 내포하는 문제점은 다음의 예문들에서처럼 쉽게 포착될 수 있다.

- (33) a. Jaime is **the one who** solved it.
 b. Jaime es **quien** lo resolvió.

영어와 달리 스페인어의 *quien*은 선행사를 내포한 ‘명사적’ 관계절을 형성한다. 여기에 *quien*과 *who*의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목적격 인칭 관계대명사가 선행사 없이 명사적 관계절을 도출할 경우 선행사를 수식하는 목적격 인칭 관계대명사와 현격한 통사적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다음의 관련 문장들을 살펴보자.

- (34) a. **Quien** vimos en el teatro nos invitó.
 a'. **La persona a quien** vimos en el teatro nos invitó.
 a''. **La persona que** vimos en el teatro nos invitó.
 b. Es el hombre **a quien** vimos en el restaurante.

위의 두 문장의 대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quien*이 명사적 관계절을 이끄는 경우에는, 동사의 목적격이 사람일 때 의무적으로 나타나야하는 전치사 ‘a’가 생략되어 있는 반면에, 선행사를 동반하는 제한적 용법에서는 관계사 *quien*이 전치사를 동반하여 의미역의 위치로부터 절의 최상위 위치로 이동함을 보여주고 있다.

앞의 (33)와 (34)의 관계절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형태적으로는 *quien*이 단독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통사적으로는 명사절과 형용사절의 문법적 기능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용사절을 이끄는 *quien*을 지금까지 본 연구가 계속 유지해온 분석의 접근방식에 의거하여 목적격 인칭 관계대명사임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명사적 관계사절을 이끄는 *quien*의 형태만 남게 된다. 직관적으로 본 연구자는 명사적 관계사절의 *quien*이 선행사와 관계대명사가 통합된 복합 형태를 어휘적 특성에 포함하

고 있다고 규정하고자 한다. (34)의 보기에 논리적 추론으로 접근하면, 명사적 관계대명사 *quien*은 다음과 같은 동치를 나타낸다.

- (35) a. *quien*= la persona a quien
b. *quien*= la persona que

위의 논리적 동치관계가 성립하면, 주격 인칭 관계대명사의 비문법적 문장에 대한 설명은 귀납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

- (36) a. *Juan tiene un hijo_i; Ø **quien** vende las entradas h_i.
b. *Juan tiene un hijo_i; **la persona que** vende las entradas h_i.

(36b)에서 명확히 드러난 사실은 FN *hijo*가 관계절에서 주격과 행위역을 할당받고 있고, 선행사 이동의 원칙에 의해 관계사절 내부에서 선행사구 FD의 핵 ‘un’에 병합하기 위해 이동하는 도출 과정에서 다른 FN *persona*의 장벽을 만나 도출이 파탄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도출 과정이 (36a)에서도 똑같이 진행될 것이고, 단지 이 문장에서는 FN이 추상의 형태 Ø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 다를 뿐이다. 다시 말해, (36a)의 명사적 관계대명사절에서는 추상적으로 FN이 발현되고 있다는 경험적 증거이다.

결론적으로, 관계대명사 *quien*은 형태적으로 동일하게 보일지라도 형태·통사론적으로 문법적 기능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제한적 관계대명사로서 역할을 수행할 경우에는 [FN + 전치사 + *quien*]의 어순을 유지하는 반면에, 명사적 관계대명사일 경우에는 추상의 선행사를 내포하고 있음으로써 *[선행사 + Ø + *quien*] 어순이 허용되지 않는다.

V. 마무리

본 연구자는 관계대명사 *quien*의 용법을 설명하는 방법에서 먼저 언어의 보편성에 의존하여 영어와 스페인어의 관계화를 단일한 도출 과정에 따라 접근

하였다. 이는 기존의 스페인어 교수자들이 취해 온 입장과 별반 차이가 없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관계사절 내부의 의미역 위치로부터 그 절의 외부로 이동하는 선행사의 이동에 대한 Arregi의 제안을 받아들여 el que의 관계사절을 주격과 목적격에 의한 각각의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었다. 실제로, 관계대명사 el que와 quien이 선행사가 [+humano]를 가지는 문장요소일 경우에는 두 관계절의 도출형태가 매우 유사함에 의거하여, 본 연구자는 전자의 도출과정에 힘입어 quien이 주격으로 관계사절을 도출하지 못함을 보여줄 수 있었다.

결국, 스페인어 관계대명사 quien은 통사적 관점에서 분석하였을 때 선행사가 불필요한 명사적 용법과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부적인 형태는 ‘quien’ 한 어휘만 활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어휘적 특성을 구분하여 파악함으로써 영어의 관계대명사 who와의 단순 비교에서 벗어나 명사적 용법 anyone who의 용법 또한 스페인어 quien이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 줄 수 있었다. 즉 quien의 독특한 통사적 용법이 스페인어와 영어의 매개변인의 차이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휘적 특성에 기인함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 송석홍. 1985. 『A Predication Approach to English Relativization』.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신태식. 2008. 『스페인어 의문사의 통사론적 분석』. 《스페인어문학》, 46(1): 63-78.
- 심상완. 1998a. 『원형 관계절과 접속법 관계절의 대조에 관하여』. 《서어서문연구》, 12: 91-110.
- _____. 1998b. 『스페인어와 영어의 관계절 대조에 관하여』. 《서어서문연구》, 13: 123-147.
- 양동휘. 1986b. 『관계화』. 《영문법 개론》. 서울: 신아사.
- _____. 1989. 『지배-결속이론의 기초』. 서울: 신아사.
- _____. 1994b. 『문법론』. 서울: 한국문화사.
- 장석진. 1994. 『통합문법론-담화와 화용-』.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Arregi, Karlos. 1998. "Spanish *el que* Relative Clauses and the Doubly Filled COMP Filter." Unpublished manuscript. MIT.
- Bhatt, Rajesh. 2002. "The Raising Analysis of Relative Clauses: Evidence from Adjectival Modification." *Natural language Semantics*, 10: 43-90.
- Bianchi, V. 2000. "The Raising Analysis of Relative Clauses: A Replay to Borsley." *Linguistic Inquiry*, 31: 12-140.
- Borsley, R. 1997. "Relative Clauses and the Theory of Phrase Structure." *Linguistic Inquiry*, 29: 629-647.
- Brucart, J. M. 1992. "Some Asymmetries in the Functioning of Relative Pronouns in Spanish." *Catalan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1992: 113-143.
- Carlson, G. N. 1977. "Amount Relatives." *Language*, 53(3): 520-542.
- Chomsky, Noam. 1977. "On wh-movement." in P. Culicover, T. Wasow and A. Akmajian(eds.). *Formal Syntax*. New York: Academia Press. 71-132.
- _____. 1983. "On binding." *Linguistic Inquiry*, 11: 1-46.
- _____. 1986.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 and Use*. New York: Praeger.
- _____. 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IT Press.
- Cinque, G. 1982. "On the Theory of Relative Clause and Markedness." *The Linguistic Review*, 1: 247-296.
- _____. 1983. "Topic' Constructions in Some European Languages and

- ‘Connectedness’.” in K Ehlich and H. Van Riemsdijk(eds.). *Connectedness in Sentence, Discourse and Text*. Tilburg Studies in Language and Literature 4.
- Fukui, Naoki. 1993. “Parameters and Optionality.” *Linguistic Inquiry*, 24: 399-420.
- Gutierrez-Rexach, J. 1999. “The Structure and Interpretation of Spanish Degree Neuter Construction.” *Lingua*, 109: 35-63.
- Kayne, R. 1975. *The Transformational Cycle*. Cambridge: MIT Press.
- _____. 1977. “French Relative Clauses and Markedness.” *The Linguistic Review*, 1: 247-294.
- _____. 1994. *The Antisymmetry of Syntax*. Cambridge: MIT Press.
- Jackendoff, R. 1977. *X’-Theory*. Cambridge: MIT Press.
- Jaeggli, O. 1982. *Topics in Romance Syntax*. Dordrecht: Foris.
- Lasnik, H. 1992. “Case and Expletivas: Notes toward a Parametric Account.” *Linguistic Inquiry*, 23: 381-405.
- _____. 1995. “Case and Expletivas Revisited: on Greed and Other Human Failings.” *Linguistic Inquiry*, 26: 615-633.
- Lagunilla, M. y Rebollo, A. 1995. *Sintaxis y cognición*. Madrid: Síntesis.
- Montague, R. 1974. “English as a Formal Language.” in R. H. Thomason(ed.). *Formal Philosophy: Selected Papers of Richard Montagu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Ordóñez, Francisco. 2000. *The Clausal Structure of Spanish: A Comparative Study*. New York y London: Garland Publishing.
- Real Academia Española. 1999.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I*. Madrid: Espasa.
- Rizzi, Luigi. 1990. *Relativized Minimality*. Cambridge: MIT Press.
- _____. 1997. “The Fine Structure of the Left Periphery.” in *Elements Grammar*.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 Rivero, M. L. 1982. “Las relativas restrictivas con *que*.” *Nueva Revista de Filología Hispánica*, 331: 195-234.
- Zubizarreta, M. L. 1998. *Prosody, Focus, and Word Order*. Cambridge: MIT Press.
- Zagona, K. 2002. *The Spanish of Syntax*.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70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제19권 2호

성명: 신태식

주소: 서울 도봉구 창동역길 19-1 205동 1401

E-mail: shintaeshig@korea.ac.kr

논문접수일: 2008년 09월 25일

심사완료일: 2008년 10월 10일

게재확정일: 2008년 10월 20일